

나의 미술사 방법 권 영 필(상지대 초빙교수)



미술사(美術史)는 영어로는 History of Art 이다. 미술 작품을 연구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더듬는 학문으로 회화·조각·미술·건축·공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미술사란 개념이 해방이후에 들어 왔을 만큼 국내는 1960년대 까지도 미술사의 불모지였다. 권영필 교수는 일찍이 1996년부터 국립 박물관의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한국미술계를 이끌어 왔다.

6월 4일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제1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미술계를 이끌던 권영필 교수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권영필(상지대 초빙교수)은 '나의 미술사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어떻게 미술사학을 접하게 됐는지와 최근 연구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에 대한 내용이었다. 권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 개인의 여정이 후학들에게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필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 후 파리 퐁브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1969~1978년 국립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1999~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했다. 2007년부터 상지대에서 강의 중이다.

정리=천진영 기자



문명은 충돌하지만 동시에 미술을 통해 화해한다

나의 50년 미술사 학습기

제 연구의 본령은 실크로드 쪽이지만 이번에는 아직 한 번도 밝혀보지 않은 저의 미술사학 학습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어떻게 미술사학을 접했고 그 이후 과정들은 어떠한지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학습기라고 생각하는 제가 한 개인의 이력에 불과한 것을 발표 한다는 것이 걱정도 되지만 저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해 2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미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상당히 특이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텍스트도 없이 분필만 들고 오셔서 칠판은 3번 쓰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원전을 그대로 외워서 칠판에 그대로 옮겨 적는 그분의 강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미술사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불교미술사입니다. 회화도 일부 들어가지만 불상이 많고 불교건축, 탑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한국미술사와의 만남은 불교미술 시작됐고 저의 첫 리포트는 불상연구였습니다. 학생 때 과제를 받아 서울 봉은사에 가서 불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무발, 배추밭, 소나무 숲을 지나야만 봉은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한밖에 한두 명만 있던 시기가 불상은 연필로 스케치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 초 저의 미술사 공부기가 시작됐습니다.

동양미술 1강은 한문강독 시간이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화론에 관한 것인데 교수님이 중국 원전을 손으로 직접 옮겨 쓰

시고 복사한 것이 수업 프린트 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 미술사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했기 때문에 서양미술사를 배울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시중에 출간된 서양미술사 책은 10권이 채 되지 않았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교수님이 일본과 유럽에서 배워온 이론과 철학

했습니다. '고고미술 동인지 한국미술 사학회'의 전신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1969년 송광사 불화조사가 아마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가 진행 된 것으로는 최초 일 것입니다. 첫 학술 조사사업은 송광사를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 1970년대 <한국의 불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배경의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용의 미학 흉노미술 흉노에 무슨 미술이 있느냐 예술이 있느냐 하는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생산하는 것도 미술영역이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향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미학입니다.

60년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 지휘자가 "한국에는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베토벤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없던 시절에도 베토벤의 음악은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흉노가 미술품을 만들지는 못했어도 그 미술품을 보고 즐기는 능력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속 주 문집 <화기>에 따르면 안평대군은 중국 그림들을 많이 사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그림에 견줄만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는 국내에 없었지만 좋은 그림을 보고

하게 미학적 접근하는 연구 방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황 연구는 미학적 연구가 아직 덜된 불모지입니다.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일본의 예수와 탄압과 양문화 보존

처음 서양 종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대립되고 충돌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몇 만 명에 이르는 종교인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명은 처참하게 충돌했지만 서양 종교와 함께 유입된 미술 화풍은 그대로 인정되고 융화됐습니다. 심지어 서양화가들의 작품이나 양풍화들이 사찰 서고의 서책들 사이에 혹은 법당의 천장에 보존돼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불잡혀 가지 않으려고 예수 성상을 그린 화가들은 달마상을 그리기도 했으며 내용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뀐 내용에도 불구하고 화풍은 서양화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중국에 간 어떤 선교사는 서양 물감을

기원전 서아시아 그린 고구려에도 영향줘

그리핀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지고 뒷다리와 몸은 사자인 상상속의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돼 이란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흉노로 들어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이러한 전과 과정은 전쟁이라는 심각한 여건 속에서 미술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스키타이에서도 그리핀을 중요한 문장으로 채택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또, 문명의 불모지로 여기는 흉노에게서 중국이 그리핀문양을 전해 받은 점도 특이합니다. 이 그리핀 문양은 고구려 벽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구려 벽화의 동물이 최초의 서유럽의 문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마찰을 승화시키는 미술의 힘

제일교포인 서경서 씨는 불문학을 전공한 학자로 <청춘의 사심>을 통해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본 감상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일본의 그림의 불 때 왜정시대 일본을 용서 할 수 없지만 작품을 볼 때만큼은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일본 작가라고 하면 그림 자체도 다 싫어하는데 그림을 감상할 때는 빨리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미술 작품의 이윤배반적인 효과를 체험했음을 말했습니다.

철학자 바이문 씨 역시 "미술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주 전체 속에서 화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고 말해 미술 작품의 화해의 기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은 일어나지만 예술작품을 통해서 동시에 화해의 요소를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 보며 어렵게 공부한 철학 지금껏 미술사 연구에 큰 도움

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 중 후설(E. husserl)의 감각론에 대해 배웠는데 학생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사전만 계속 들여다 봐야하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 철학시간이 싫었습니다. '미술사와 독일철학이 무슨 상관이나' 하는 생각에 짜증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그때 공부한 원론적인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 임시적으로 국립박물관 학예 보조사로 임용됐습니다. 월급이 9400원. 책 두세 권 사면 끝나는 월급입니다. 제가 좋아서 갔기 때문에 그렇지도 모르지만 박물관에서의 경험은 저를 잊게 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술사 연구의 1차 자료는 박물관입니다. 진열장에 놓고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복구도 하고 연구도 하니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불화조사' 사업을 맡았

교불화와 송광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돈황 석굴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연구도 안 된다

다음은 파리 유학시절입니다. 유럽의 화풍은 어떠한지 지금도 물어오는 후학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화풍은 합리주의 철학이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동시에 강한 비판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황에 대해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돈황에 직접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과 중국은 수교가 안돼 방문 허가가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끝내 비자가 나오지 않자 교수님은 돈황 석굴에 가지 못하면 이 연구를 더 진행 시켜 줄 수 없다고 해 주제를 바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것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새삼 느

미술은 극한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주어 화해를 일으킨다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미학은 미적 상상력입니다. 체계화되고 정리된 상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상이나 또 다른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배경까지 고려하며 미술을 보는 연구도 있지만 순수

가지고 중국화를 배워 중국화를 그렸습니다. 18세기에 종교 탄압 속에서도 황실의 화원에서 그 그림만큼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종교는 탄압 되면서도 같이 들어온 미술 문화는 왕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명맥을 유지 발전 시켜나갑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NAVER 검색창에 휘나잇 온열요법을 검색하세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휘나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편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따뜻하게 배출되기때문에 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질사제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잇은 30여종 광물질 (특히희토류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더 일반반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별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납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검색책 지름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삼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옷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 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